

아세안의 영향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김 창 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매개 나라가 자기 나라 문제는 물론, 국제정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하는 데서도 자주적인 입장을 지킬것을 주장합니다.》(《김일성전집》 제73권 74페이지)

제2차 세계대전후 동남아시아나라들은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인 새 생활창조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이 계속되고 지역 나라들사이에 력사적으로 형성된 복잡한 문제들로 인한 서로의 불신임과 대립관계는 지역의 단합을 저해하고 불안정한 정세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지역의 평화적발전을 심히 억제하였다. 이것은 지역 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련대성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적으로 1967년 8월 타이의 지방도시 방사엔과 수도 방코크에서 아세안창설을 위한 제1차 아세안외무상회의가 진행되고 아세안의 창립선언인 《아세안선언》(방코크선언)이 조인됨으로써 아세안(동남아시아조약기구)이 정식 창설되었다.

동남아시아나라들은 아세안이 창설된 이후 그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아세안의 영향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동남아시아나라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아세안을 전체 동남아시아나라들을 포괄하는 전지역적인 국제기구로 확대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것이다.

아세안이 창설될 당시 그 성원국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타이 등 5개 나라에 국한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소한 범위에서의 아세안의 창설은 앞으로 이 기구를 지역전체어로 확대하기 위한 동남아시아나라들의 활동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아세안을 지역전체어로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아세안은 브루네이를 기구창설이후 첫 가입국으로 선정하고 이 나라를 기구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브루네이와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사이의 관계는 팽팽한 상태에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1963년에 말레이시아련방을 형성하면서 브루네이도 여기에 가입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브루네이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거머쥐려는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 토호들을 내세워 련방가입을 반대해나서게 하였다. 그리하여 브루네이와 말레이시아사이의 관계는 긴장되어있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1963년에 브루네이에 북부팔리만탄혁명정부가 수립되자 그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지하였는데 1965년 1월 브루네이혁명이 실패하자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또다시 악화되었다. 이로부터 브루네이는 아세안가입을 통하여 이 나라들과의 관

계를 개선하고 정치적독립을 인정받으려고 하였다.

아세안은 브루네이의 아세안가입이 기구의 지위와 위신을 높여주는것으로 보고 그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였다.

아세안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아세안의 읍써버로 있던 브루네이가 1984년 1월 아세안의 6번째 성원국으로 됨으로써 아세안은 자기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었으며 한편 브루네이는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국제무대에 진출할수 있게 되었다.

랭전종식후 아세안성원국들은 변화된 국제적환경에 대처하여 아세안을 더욱 확대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전, 경제적번영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며 기구의 국제적지위를 높이는것을 공동의 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갔다.

랭전시기에 동남아시아나라들의 국제관계가 지역의 테두리안에서 아세안창설 등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면 랭전종식이후에는 그것이 지역의 협소한 울타리를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아세안의 확대와 영향력의 강화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랭전이 종식되고 캄보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아세안과 월남, 라오스, 캄보자는 이전 시기의 의견상이를 점차 줄이고 호상 신뢰하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을 대외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을 맹렬히 벌림으로써 아세안을 확대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아세안나라들은 이미 1975년 5월 제8차 아세안외무상회의를 계기로 월남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접근정책으로 바꾸고 그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92년 1월에 있는 제4차 아세안수뇌자회의는 아세안가입범위를 넓힐데 대한 토의 안전에서 월남, 라오스, 캄보자, 만마의 아세안가입의향을 지지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였다. 1995년 7월에 월남이 아세안성원국으로 되었으며 1997년 7월에는 라오스와 만마가, 1999년 4월에는 캄보자가, 2012년말에는 동부티모르가 아세안의 성원국으로 됨으로써 아세안은 정치, 경제, 문화, 안전 등 동남아시아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지역기구로 확대강화되게 되었다.

아세안의 영향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동남아시아나라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국제관계당사자로서의 아세안의 지위에 맞게 그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것이다.

아세안은 우선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랭전종식은 아세안으로 하여금 변화되고있는 이 지역의 세력관계와 그에 따르는 정치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기 식의 안전보장정책을 수립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아세안은 동남아시아나라들과 주변대국들을 포괄하는 지역연단을 창설하여 지역에 대한 대국들의 력량관계를 조절하고 정치, 안보문제를 의제로 다무적대화를 적극 진행함으로써 호상신뢰관계를 수립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것을 구상하게 되었다.

아세안성원국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1994년 7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안전보장과 신뢰회복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둔 아세안지역연단이 창설되었다.

이와 함께 아세안지역연단의 보안단체로서 지역적안전보장문제를 토의하는 연구단체들의 그루빠인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협조리사회가 조직되었다.

아세안은 성원국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아세안나라들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며 그를 통한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1992년 1월 아세안성원국들은 공동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특혜관세체제를 통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1993년 10월에는 아세안성원국 경제상들의 제25차 년차회의에서 1994년 1월부터 공동특혜관세계획을 실시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아세안나라들은 자유무역지대창설을 다그치면서 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목적으로 동아시아나라들을 망라하는 동아시아경제협의회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세안은 국제경제관계에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성을 높이며 경제적련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원국들사이의 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었다. 그리하여 아세안나라들의 대외수출이 대폭 늘어나고 지역내에서의 무역도 확대되었다.

아세안나라들의 경제발전은 이 나라들로 하여금 호상협조를 더욱 강화하여 무역을 발전시킬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아세안은 성원국들사이의 무역협조를 강화하여 2000년의 수출장성률이 1999년에 비하여 싱가포르에서는 22.2%, 말레이시아에서는 19.5%, 필리핀에서는 11.5%, 인도네시아에서는 34.9%에 이르렀다.

1997년 7월에 타이에서 폭발한 동남아시아금융위기는 아세안성원국들의 경제발전과 사회적인안정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나라들사이의 경제적련계가 깊어진 새로운 환경은 아세안성원국들로 하여금 서방에 의존하던 기존경제방식을 허물어버리고 성원국들사이의 경제적통합을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아세안성원국들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단일화폐를 도입하는것을 아세안의 주요목표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와 같이 아세안성원국들사이에 날로 확대발전하고있는 경제무역협조는 제국주의자들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배격하고 경제발전에서의 대외의존도를 줄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아시아를 건설하려는 자주적인 지향의 산물이였다.

아세안은 또한 성원국들뿐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활동도 강화하였다.

아세안나라들은 중동 및 아시아의 발전도상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경제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세안나라들은 방글라데슈, 스리랑카, 말디브, 인디아 등 남아시아지역협조련합(사아르크)성원국들과 경제협조를 확대시켜나갔다. 스리랑카는 1992년 가을 해외에서의 투자촉진전략회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고 싱가포르의 기업들이 스리랑카에 투자할것을 호소하였다.

2000년 4월 인도네시아대통령은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꾸바의 아바나에서 진행된 남수뇌자회의에 참가하여 경제협조와 관련한 일련의 합의를 보았다. 그는 《몇개월전에 미국무성의 고위급관리가 자카르타에 와서 나에게 아바나에서 열리는 남수뇌자회의에 참가하지 말것을 요청하면서 테헤란과 타라불스, 바그다드를 방문하지 말라고 경

고하였다.》라고 폭로하였다.

인도네시아대통령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방문을 중지시키려는 미제의 압력을 물리치고 자기의 결심에 따라 2000년 6월 이란을 방문하여 이 나라 대통령과 경제문화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쌍방경제공동위원회사업을 확대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두 나라의 리익에 맞게 경제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방문하였을뿐아니라 리비아지도자를 자기 나라에 초청하여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나라들은 미국, 일본, 유럽동맹 등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적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립장을 취하면서 그들과의 경제관계를 밀접히 하였다.

아세안성원국들의 이러한 립장은 그들이 자본주의나라들의 대외경제적의존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싱가포르는 미국경제위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던 지난 시기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말~1990년대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시아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시장을 다각화하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여나갔다.

말레이시아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아시아나라들과의 무역을 더욱 중시하는데로 나갔다.

아세안나라들은 일본과의 국제경제관계에서의 심한 불공평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제적침투를 배격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 일환으로서 아세안나라들은 일본의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였다.

아세안은 또한 경제가 장성하는데 맞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아세안은 자기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다그치기 위해 경제공동체창설을 지향해나갔다.

2008년에 아세안의 전략적목표와 원칙, 지위 등을 명확히 규정한 아세안헌장이 발효됨으로써 지역일체화실현의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아세안은 2015년까지 지역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전략적목표를 내세우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12월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를 3개 기둥으로 하는 아세안공동체를 창설하였다.

아세안은 인권, 민주주의, 가치관 등 지역의 정치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인권》, 《부정부패》, 《로동기준》을 운운하면서 내정간섭과 압력을 가해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반기를 들고 맞서나가고있다.

오늘 아세안은 대외정책에서 자주, 친선, 호혜,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에 맞서 집단적공동행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가고있다.